브리핑 12.13(월) 11:00 엠바고: '21.12.14(화) 조간, <인터넷: '21.12.13(월) 12:00 이후>

'21. 1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

□ 안녕하십니까,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.
1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보도자료 1쪽입니다.

○ **'21년 11월**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**1,463만 3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33만 4천명 증가했습니다.**

▸ **가입자수 증감**(천명): ('21.7)485→ (8)417→ (9)390→ (10)356→ **(11)334**

○ 지난해 추경일자리 사업으로 증가했던 **공공행정** 가입자는
최근 **기저효과로 감소가 확대**되고 있으나
공공행정을 제외한 가입자 증감은
7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
고용상황이 개선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▸ **공공행정 제외** 가입자수 증감(천명): ('20.11)189, ('21.8)462→ (9)473→ (10)467→ **(11)463**

□ 보도자료 2쪽입니다.

○ **제조업**은 내수, 수출에 힘입어 **투자, 생산이 증가**하여
대부분 업종에서 **개선**되고 있으며

○ **서비스업**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**수요 증가**와
백신접종,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**소비심리 개선*** 등에
힘입어 **증가 지속**하였습니다.

* **소비자심리지수**: ('20.11)99, ('21.7)103→ (8)103→ (9)104→ (10)107→ (11)108

○ **모든 연령대에서 피보험자가 증가**했습니다.

- 특히, **청년층과 30대**는 **인구가 감소**하고 있으나
청년층은 **'출판정보통신업'과 '제조업' 중심**으로
30대는 **'출판정보통신업'과 '전문과학' 중심**으로
증가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○ **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9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1천 명으로 감소했으며,

- **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,224억원 으로**
3개월 연속 1조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.

□ 보도자료 3쪽 **청년층 관련 동향**자료입니다.

○ **청년층**은 코로나19 영향으로
숙박음식, 도소매 등에서 고용이 크게 위축되었으나
'21.4월부터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-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**'출판영상통신**(SW)**', '제조업**(전자통신, 자동차)**', '전문과학기술' 등을 중심으로 증가**하고 있습니다.

□ (상세설명) 보도자료 7쪽 **업종별 동향**입니다.

○ **제조업** 가입자수는 **362만 7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9만 2천명 증가하여
올해 1월 증가 전환 이후 **증가가 지속**되고 있습니다.

▸ **가입자수 증감(천명):** ('21.7)79→ (8)86→ (9)89→ (10)89→ (11)92

○ 제조업 중분류별로 주요 업종의 특징을 보면
'식료품'은 **1인 가구 증가**, 코로나19 영향으로 **가정대용식 수요 증가**로 **피보험자 증가가 지속**되고 있습니다.

○ (9쪽) 가정용 기기, **배터리 수요** 증가로 **'전기장비'**,
설비 투자 확대로 건설·공작기계 등 **'기계장비',**
반도체, 컴퓨터, 가전 등 **'전자통신' 등**
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
○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는 **'기타운송장비'**는
전년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**수주량 증가**에 따라
선박건조업, 부품 제조 중심으로 **감소폭이 축소**되고 있습니다.

○ **'자동차'**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생산의 어려움이 크지만
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**대규모 사업장 신규 설립** 등에 힘입어
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□ 다음으로, **11쪽 서비스업 동향**입니다.

○ **서비스업** 가입자수는 **1,010만 6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21만명 증가**하였습니다.

▸ **가입자수 증감(천명):** ('21.7)377→ (8)301→ (9)270→ (10)235→ (11)210

- **서비스업**은 **소비심리 개선, 온라인 서비스 확산**(온라인쇼핑, 택배, 출판영상통신), **정책지원**(연구개발, 전문서비스[광고, 컨설팅]) **등의 영향**으로 **증가를 지속**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**단계적 일상회복, 국내여행 증가** 등에 힘입어
'숙박·음식업'은 감소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**'공공행정'**은 **전년도 기저효과**로
4개월 연속 감소폭이 확대되었고

- **'운송업'은** 택시, 시외버스, 여객기 등
육상 및 항공운송업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□ **서비스업 주요 중분류별 동향**입니다.

○ **'도매업'**은 건설업, 제조업 **장비 및 상품 중개 중심**으로
'소매업'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로
편의점,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**증가**하고 있습니다.

○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의 수요 확대로
'프로그래밍', '정보서비스', '영상·오디오기록물제작·배급' 등
온라인 기반 서비스업종에서 **증가가 지속**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의학, 약학, 자연과학 등의 **'연구개발업',**
광고대행, 경영컨설팅 등의 **'전문서비스업'**,
R&D, SOC 예산 지원 등의 영향을 받은 **'건축기술엔지니어링'**
등에서 **증가가 지속**되고 있습니다.

○ 제조업, 건설업 등 경기 회복으로 **'사업시설관리'**는
증가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**17쪽,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현황**입니다.

○ 11월 **구직급여 신규신청자**는 **8만 9천명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1천명 감소**했고,
구직급여 수혜자는 53만 7천 명으로
전년동월대비 **6만 8천명 감소**했습니다.

○ **구직급여 신규신청자 및 수혜자수는**
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이후
다시 공식 발표된 지난 **7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**하였습니다.

- 특히 **제조업, 건설업,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**으로
신규신청자가 감소 지속하고 있습니다.

○ **구직급여 수혜금액**은 **8,224억 원**으로
전년동월대비 **10.0% 감소**하였습니다.

< 종합평가 >

□ **고용보험 행정통계**로 본 **11월 노동시장 상황**은
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
단계적 일상회복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
민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**개선세**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
○ **회복에 대한 기대**가 높아지며 **소비심리가 회복**되고,
수출 호조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

○ 다만, **방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**하고
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로
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
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'**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**'과
'**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**'을 목표로
내년도 고용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.

① 우선, **코로나19 충격이 큰 부문의 일자리 회복**을
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노인·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**직접일자리 105만개를**
신속하게 제공하고,
위기산업 종사자 **유급휴가훈련**과(0.8→1만명)
취약계층의 민간취업을 위한 **고용촉진장려금**을(1.2→2.8만명)
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.

② **직업훈련을 혁신**하여 **신산업의 일자리 창출을**
뒷받침하겠습니다.

- 범부처 협업을 통해 AI, 지능형 로봇, 바이오헬스 등
20개 신기술 분야에서 15만 7천명의 인재를 양성하고,
K-Digital 훈련을 확대*하여 **구직자·재직자의**
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
* **K-Digital Training**(1.7→2.9만명): 디지털 선도기업 등이 주도하는 SW 인재양성
K-Digital Credit(4→5.5만명): 청년 등의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비용 지원(50만원)
K-Digital Platform(5→20개): 구직자 등의 디지털 융합훈련을 위한 지역 인프라 운영

③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**공정한 노동전환을**
추진하겠습니다.

- 「**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('21.7)**」에 따라 마련한
5개 부처, 41개 사업*(1.0조원)을 **본격 추진**하고,
노동전환 지원센터를 신설하여
노동전환과 사업재편·전환 지원사업을
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.

* ▲**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:**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가 지역별 훈련 필요 분야에 대한 훈련을 수시 심사·공급('22년 2.5만명, 신설)
▲**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:** 지역별 훈련거점을 지정하고 新직무 훈련, 심리상담 등이 포함된 종합 프로그램 제공('22년 15개소., 신설)
▲**노동전환지원금:**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('22년, 2.3천명, 신설)

④ **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**하는 **고용안전망**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**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**을(퀵서비스·대리운전기사, ‘22.1~)
조기 안착시키고,
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**특고·플랫폼 직종을 추가 선정**하여 **’22.7월 고용보험 적용**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**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**를 위해
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하여 **구직자 특성별 지원을 강화**하고,
집중 취업알선 기간 운영,
일경험 프로그램(2.5만명) **참여자 밀착 관리** 등을
추진하겠습니다.

⑤ 고용안전망 확충에 발 맞추어 **고용서비스를 내실화**하겠습니다.

- **특고**를 대상으로 한 **취업전담반 운영**을 추진하고,
구인기업의 근로여건과 인지도 등에 따른
맞춤형 기업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.
(18개 센터→全센터 확대 추진)

⑥ 마지막으로, 청년, 여성, 고령자, 장애인 등
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
- **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**과(14만명, 0.5조원)
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
청년의 직무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.

· 특히, 지난 10월에 마련한 **취업준비생 애로경감방안**을
차질없이 추진하여 비대면·AI 면접 준비 지원,
양질의 취업 컨설팅 확대, 현직자와 실시간 소통 등
취업준비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
집중하겠습니다.

- **여성**이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나지 않도록
3+3 부모육아휴직제와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을
신설하는 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· 아울러, 가족돌봄 등을 위한 **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**가
내년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,
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
지원사업*을 확대하고 적극 안내하겠습니다.

*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사업장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(1.3만명),
유연근무 도입 사업장 간접노무비(1.1만명)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등

- **중장년**의 경력설계를 돕기 위해
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을 **신설**하고,
1,000인 이상 기업의 **재취업 지원 의무화제도**를
내실화하기 위해,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, 기업 대상
컨설팅, 인사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**장애인**은 **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상향***과 더불어,
영세사업주에 대한 **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,**
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.

*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: 現 3.4% → (’22~’23) 3.6% → (’24~) 3.8%